

양성당이건기(養性堂移建記)

1971_송재성(宋在晟) 지음_65.0×106.0cm



1971년 응도당을 이관하는 경위를 설명한 기문이다. 홍수로 인해 1871년(고종 8) 응도당을 제외하고 사당과 양성당 등을 이관하고 응도당은 양성당으로 개명하고 원래의 위치에 존재하였는데, 1971년 돈암서원 원장이었던 황교성의 주도로 응도당을 이관하였다. 기문에 의하면 이관 기간은 106일이 소요되었으며, 정부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응도당의 이관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養性堂移建記

連山一區我文元公沙溪金先生菟裘之鄉而養性堂乃先生平日講道之所也 址陷水浸勢難永保矣 遠遜巖書院之自林里移建之日 以其講舍凝道堂改額養性 蓋出於一時權宜也 先生後孫經臺公爲之記而詳其源委焉 厥後九十星霜每擬移建 事力不贍廷拖于今矣 黃君敦性以院任慨恨于斯方欲呼籲于公私之際適末候喜變來守是邦 亦有尊賢尚德之誠者也 相與周旋于當局而得巨贊 又自本郡別有措劃委其事 於黃君移于書院之傍問架則依舊而易其棟樑之朽敗 新其軒窓之荒頽 輪奐改觀瞻聆欣鑑噫 此時何時百六乾坤 吾道晦塞異端邪說 日新月盛 塗人耳目換人心腸 滔滔然趨於利欲之臼 於其所自出之祖先遺蹟 尚不思愛護 況先賢之堂構乎 然而宋侯與黃君之左右周章 始終賢勞 足以喚醒世人之心目 而有所起欽於此 可見先生盛德之入人也 深感人也遠矣 亦可見人之秉彝極天 而罔墜也 夫既有此盛舉 則不徒爲一時之好事 必反求其本 讀先生之書 講先生之道 存其心而養其性 使先生之遺化百世不泯 然後乃可謂盡尊慕之道也 役已訖 黃君屬余記其事辭不獲署識如右云爾

先生歿後三百四十一年辛亥秋七月 日

後學恩津 宋在晟 謹記

양성당이건기[養性堂移建記]

연산 이 지역은 우리 문원공 사계 김장생 선생이 만년에 은거하시던 향리이며 양성당은 사계선생께서 평일에 후학을 가르치시던 곳이다. 터가 낮아 수해를 당해 땅의 기세가 양성당을 영원히 보존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돈암서원을 임리로부터 이견함에 이르러 강사인 응도당을 양성이라 편액을 고치니 대개 일시적으로 그리한 것이다. 선생의 후손 경대공(經臺公)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 그 근원을 밝히었다. 그 후 90여년간 이를 이견하고자 논의는 분분하였으나 이견하기에는 재원이 넉넉지 못해 이를 끌어오다가 지금에 이르렀다. 서원 원장으로 있던 황교성이 이를 한탄스럽게 여겨 우리 고을 군수로 와있던 송희섭을 공사간의 관계로 만나 이건을 호소하였는데 그도 어진 이를 받드는 일에 매우 적극적인 성실한 사람이었다. 군수도 함께 관계 당국에 추천하여 큰 돈을 모았고 또 본군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여 황교성 원장에게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서원의 이전을 설계하는 일이다. 서원의 시령들은 그대로 옮기고 용마루와 석가래가 썩은 곳은 바꾸었고 추녀와 창문의 무너진 곳을 새로 보강하여 건물이 크고 화려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으니 보고 들을수록 기쁨이 넘친다. 이 이견하는 일이 106일에 이어졌다. 이 땅의 바른 도리는 이단사설의 어둠에 막히기를 나날이 더해가고 백성들의 이목도 바뀌어 인심이 흉흉해지고 도도하게 이욕의 허물예 달려갔는데 [滔滔然趨於利欲之曰] 조상들이 남긴 유적에서도 이와 같았으니 오히려 애호해야 함을 생각지 못했다. 하물며 선현의 가업(家業)을 이어받아 발전시키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고을 군수와 황원장께서 여러 면모로 고심하고 시종토록 어질게 일하시어 세상의 인심을 바꾸어 공경의 기운이 사회에 일어나도록 하였으니 이는 사계선생의 성덕이 사람에 투영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사람들을 깊이 감동시킴이 오래 전해질 일 것이다.

이는 또한 사람 본연의 깨끗함이 만고에 상존함을 알 수 있도록 한 일이다. 대저 이와같은 성대한 거사는 한 때의 호사가 아닐지니 반드시 그 근본을 돌이켜 찾아 선생의 책을 읽고 선생의 도를 강론하여 그 마음을 온전히 보전하고 성품을 길러 사계 선생의 가르침이 백세 동안 없어지지 않은 연후에 존경과 흠모의 도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견하는 일을 모두 마치고 황원장께서 나에게 그 간의 일을 기록해달라고 부탁하여 얇은 지식임에도 이 글을 지었다.

선생 몰후 341년 신해(辛亥, 1971) 가을 7월 일예

후학 은진 송재성이 삼가 기록하다.

※ 번역 : 위창복